

2026. 1. 28.(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6년 1월 28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정원도시국 조경과

조경과장

온수진

02-2133-2101

정원조성팀장

김승렬

02-2133-2107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4쪽

관련 누리집
(메뉴)

<http://parks.seoul.go.kr>

서울시, 호반건설과 서울숲 '기업동행정원' 조성 위한 업무협약

- 서울시·호반건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내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 1월 27일
- 서울숲 잔디광장에 쉼터와 녹색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휴식할 수 있는 특화정원 조성
- 시, 기업의 ESG 사회공헌과 정원 도시 정책 연결로 정원 문화 확산 기대

- 서울시는 2026년 5월 1일 서울숲에서 개막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호반건설과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월 27일 체결했다.
 - 협약식은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개최되었으며, 변부섭 호반건설 건설안전부문 대표,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 이번 협약은 기업의 ESG 기반 사회공헌과 서울시 정원 도시 정책을 연결해, 박람회 기간뿐 아니라 이후에도 시민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원 공간을 서울숲에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 '기업동행정원'은 기업이 가진 경영 철학과 사회공헌 실천을 정원이라는

공공 공간으로 구현하는 프로젝트다. 호반건설은 ‘자연과 사람의 조화’라는 기업의 가치를 담아 쉼터 시설과 녹색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정원을 서울숲 중앙 잔디광장 주변에 선보일 예정이다.

- 정원 주제는 ‘공존의 미학’으로, 수목과 다양한 정원요소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시민들과 함께 자연과 사람, 건축과 삶의 조화를 지향하는 호반그룹의 기업 철학을 공유할 예정이다.

-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2026년 5월 1일 서울숲에서 개막하며, 정원 전시·체험·국제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원문화 확산과 도시 녹색전환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로 추진될 예정이다.

-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기업의 사회공헌이 정원이라는 공공 자산으로 연결될 때 시민의 일상에는 더 많은 쉼과 녹색이 더해진다”며 “호반건설과 함께 서울숲에 조성할 기업동행정원이 박람회 이후에도 오래 사랑받는 정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6. 1. 27.(화) 협약식

(왼쪽부터 변부섭 호반건설 건설안전부문 대표,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



'26. 1. 27.(화) 협약식

(왼쪽부터 변부섭 호반건설 건설안전부문 대표,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

|Q1|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는 기업은 어떻게 선정됐는지?

- ◆ 2015년부터 개최해오던 박람회를 국제적인 규모로 추진하기 위해 2024년부터 서울국제정원박람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 ESG 경영과 사회공헌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진 기업들이 정원 조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뜻으로 정원조성 의사를 서울시로 전달하였으며 세부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Q2| 기업동행정원 조성 추진 방법은?

- ◆ 서울시와 기업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규정된 상호 역할을 수행하여 추진합니다.
 - (서울시) 사업에 대한 기획 및 홍보 지원, 장소제공, 인수 후 유지관리 등
 - (기업) 정원의 설계 및 시공, 홍보, 재정지원 등

|Q3| 향후 유지관리는?

- ◆ 서울시와 기업간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서울시로 소유권이 이관되며,
- ◆ 이후 서울시에서 유지관리를 시행합니다.